제 283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7년 6월 22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1997년도 표어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생활지침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홍해작전 막바지에 이르다

승전감사예배는 29일(주일)

민족과 교회, 가정과 개인의 길에 놓인 홍해를 헤쳐 나가기위해 전교회적으로 펼치는 홍해작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6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미명을 기도의 함성으로 깨우기 시작한 지 오늘로 17일. 97 홍해작전 행진이 끝나는 25일(수)까지는 불과 3일 남은 셈이다.

우리 교회가 홍해작전을 해마다 현충일과 6 · 25사변 기념일이 있는 6월에 개최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의 마지막 날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상기케 하는 6 · 25기념일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위기와 혼란에 대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북한 동포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홍해작전에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행로를 살피고 있다. 20일간의 홍해작전 행진이 끝나는 날엔 여호수아서 전 장을 완전히 공부하게 된다.

홍해작전의 승전감사예배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 드리게 된다.

가족초청만찬회가 지난 16일(월)에 열렸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를 통해 초청된 많은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신했다 〈관련기사 3면〉.

각 부서 여름행사 준비 한창

각 부서들이 7 · 8월에 가질 여름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유치 · 유년 · 초등부는 1 ~ 2일간씩의 여름성경학교를 교회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교사들의 기도회 및 준비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 · 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도 일정과 장소, 프로그램 선정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교회학교의 경우 매주일 갖는 집회는 한정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방학 및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영성훈련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일년 행사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각 부서는 여름행사들이 학생과 교사들의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헌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여름성경학교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교회가 실시하는 교사강습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부서별로도 계획수립과 진행을 위한 준비모임 및 기도회가 계속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교회학교 외에도 찬양대 혹은 전도회 다락방들이 특별한 여름행사들을 가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100교회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각기 농어촌 자매교회를 직접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97 홍해작전 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질서, 북한 동포를 위해…
2.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12개 교회학교, 12개 교구와 다락방의 부흥을 위해…
3.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일가친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농어촌 110개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지, 킴치신학세미나를 위해…
5. 악한 문화 추방과 크리스챤 문화 형성을 위해
   퇴폐문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퇴치 및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6. 개인의 신앙부흥을 위해
   말씀 · 기도 · 찬송 · 전도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도록…
7.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건축허가와 민원의 해결, 기공예배와 건축일정을 위해…

순례자 칼럼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이 있다. 성경에 가득히 담겨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믿음으로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며, 불치의 병도 고쳤고, 성난 파도도 잔잔케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

믿음의 힘은 이와 같이 가히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창조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하면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가 인류 사회에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도리어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마치 총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자가 총과 탄약을 함께 갖게 되면 오발사고를 낼 수밖에 없듯이 믿음의 힘은 강한 것이지만 그 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을 경우 교회는 물론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만 자랑치 말고 이제는 성숙한 신자로서 그 믿음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창세기 강해 — 50장 22, 23절

후손의 축복

이종윤 목사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일백 십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창 50:22, 23)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가인과 아벨을 출생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창세기에는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 얘기가 나오며 본문에는 요셉의 가족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누구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혹은 '누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는 관용구가 11회 나옵니다(창 2:4, 5:1,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36:9, 37:2).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창조, 타락, 홍수, 선민 등 족장들의 계보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가정 회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두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시 68:6).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단위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17세에 집을 떠난 후 고독하게 살던 요셉은 결혼을 한 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서야 비로소 고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삼 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23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은 증손자까지 볼 만큼 은혜받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축복은 기억하지만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주 간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정을 주신 것을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2.구원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 - 6).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9).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전 7:14).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가족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 가족과 더불어 새 생명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가정에서도 가라지는 생기는 법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는 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3.하나님의 가정

요셉은 손자 마길의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손자를 무릎에 앉혀 놓고 키웠다는 것은 기도하며 키웠다는 말입니다. 손자를 무릎에 앉혀 놓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1)신실한 부모

자녀를 키우는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르는 것 같고 안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죄를 멀리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틈틈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모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2)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교회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피차에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반드시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세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단순했을 때는 집을 떠나도 별로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는 고독과 아픔으로 가득 찼고 가족은 다른 가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켜 주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 돌보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열린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너무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이웃과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고독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사람의 위로처가 되어야 하고 피차에 교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4)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모든 은혜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와 더불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초청만찬회 스케치

"나도 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족초청만찬회가 지난 월요일(16일)에 300석이 넘는 삼정호텔 연회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저녁식사 후 첫 순서는 강석우 집사의 사회로 참가한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특강시간 황수관 교수는 강의와 개인간증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과 참석한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드린 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는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환자처럼 우리는 본래 희망이 없던 존재이지만 인간의 형편과 중심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설교했다. 아울러 "38년 된 병자도 나음을 얻었고, 니고데모도 거듭났으며, 의심 많던 도마도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와 세상에 대한 안목이 변화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가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이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은혜와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신앙의 세계를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교했다.

설교 후 결신의 시간에는 초청받은 가족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또한 참석자 중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 날을 위해 기도해 온 성도들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요5:24)을 기억하며 결신하는 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순간을 기도로 함께 하였다.

아울러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로와지는 변화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했다.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통·일

이경구(새가족부)

서울교회와 저 나름대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강단을 통해 흘러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이 좋아서 붙잡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말씀을 들을 때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가 생기는 것 같고 가슴 반쪽이 텅 빈 것 같은,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 답답함이 가슴을 조여 왔습니다.

1960년대 우리네 살림이 어려웠을 때, 우리들의 어머님들은 잔치집이나 생일집에 다녀 오셔서는 "자식들이 걸려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더라.",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제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늘 저 혼자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것이 마치 저 혼자만 사는 것 같은 생각에 쓸쓸하고 온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몹시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때로 제 일이 잘 안될 때 믿음의 가족들,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믿음 통일 하시오. 그러면 얽힌 실타래 매듭이 풀어지듯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것이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금년 초, 1월이 가기 전에 제 아내와 믿음 통일을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한쪽으로서 서울교회 교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1월이 지나고 2월, 3월, 4월이 지났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예배를 혼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제 아내가 교회를 같이 가자면서 먼저 앞장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거듭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등록하고 서울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매일 홍해작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홍해작전 새벽기도회에서 이종윤 목사님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여 녹 다운(knock down)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열(10)을 세기 전에 일어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완전히 녹 아웃(knock out)되어버리면 KO당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한 믿음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순례길에서

불이 나도 감사

서희숙(집사, 새가족부 교사, 12교구)

"집사님,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예수님을 갓 영접하고 이제 그 첫사랑에 너무도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그런데 주일 I부 예배 시작 전 마주친 그들의 얼굴은 얼굴은 창백하고 몹시 지친 기색이었고 몸에서는 탄내가 났다. 토요일 오후, 잠시 외출한 사이에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가스불을 켜 놓은 채 나가 놀다가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된 것이다. 망연자실하여 잿더미 속에서 밤을 지냈으나 그래도 주일 예배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같아 달려 나왔다고 했다.

마땅히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나를 향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놀랍게도 '감사' 였다. 가족의 생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 감사, 안일해진 신앙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니 감사…

원망과 낙심섞인 말이 쏟아져 나와야 할 상황에서 그들의 고백은 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른다.

다음 날 다락방 식구들과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사고를 당한 가족에겐 시간이 흐를수록 충격은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다락방 식구들은 숟가락, 남비, 당장 갈아입을 옷 등 생각나는 대로, 힘 닿는대로 모아 가져다 주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소속의 여전도회에서도 적지 않게 모금을 해 보내왔다. 흔쾌히 도우려 나서는 이들로 인해 집과 모든 것을 불에 날려버린 그들이 하루 하루 견뎌내고 있다.

종교적인 많은 갈등을 정리하고 이제 막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지만 어려움 중에도 그들의 단순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에 위로하러 갔던 이들이 도리어 위로받고 돌아오곤 한다.

그 위로와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나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생명 있음이 감사하고, 주안에서 하나된 교우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이 함께 계심이 감사하고…

동정

* 이종윤목사는 27일(금) 서울여자대학교 이사회에 참여한다.
* 박노기집사(5교구 상도다락방)는 17일(화) 논현동에 '오즈숍'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3444 - 9230)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정하자성도(고 김기수성도)가정에서 제공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가족초청만찬회에서 결신한 이들을 위해
3. 각 부서 여름행사 준비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4.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